

## 광주 '일자리 쇼크' 실업률 역대 최악

호남통계청 발표 고용 동향  
8월 실업자 3만3000명  
자영업자 참사 수준으로 급감  
市 '일자리 최우선' 구호 무색  
전국 40대 취업자 큰 폭 감소

'광주 일자리 쇼크' 상황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률은 역대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 창출력이 큰 제조업을 비롯, 영세자영업자와 도소매·음식업 종사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고용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광주시의 구호가 무색한 지경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지역 실업자는 3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2만1000명)보다 무려 1만2000명이나 늘었다. 실업자 수는 지난 1월 2만3000명에서 2월 3만5000명, 3월 3만9000명까지 치솟았다가 3만 6000명(4월), 3만 1000명(5월), 2만5000명(6월)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7월 3만명, 8월 3만3000명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업률도 급등하고 있다. 광주의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전년도 같은 기간(2.7%)에 견줘 1.5%포인트 높음 수준이다. 올해를 제외하면 광주 실업률이 4.0%를 넘어설 때는 지난 2016년 이후 2월(4.0%)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나마 3월(5.0%) 이후 4개월 내리 감소했다가 7월(3.8%)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점은 우려할만하다.

취업자도 감소했다. 광주의 지난달 취업자는 7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줄었다. 대표적 시민업종인 광주 지역 자영업자는 '쇼크' 수준으로 급감했

다. 지난달 광주 자영업자는 15만1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5만6000명)에 견줘 3.4%(5000명) 줄었다. 광주 자영업자 수는 올해를 제외하면 지난 2013년 2월(15만1000명) 이래 가장 적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으로 지난 2012년 5월(10만1000명) 이후 가장 적어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남지역 자영업자 수도 28만4000명으로 1년전(30만1000명)보다 1만7000명 감소했다.

광주 도소매·숙박·음식점 일자리도 줄어 들고 있다. 도소매·음식점 종사자의 경우 1년 전(16만8000명)에 비해 1만8000명이나 줄어 15만1000명에 불과했다. 지난 6-7월을 제외하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고용 창출력이 큰 제조업 종사자도 11만명으로 전년 동월(11만7000명)보다 8000명 줄면서 지난 3월(10만8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통상 반대로 움직이던 제조업과 자영업 통계가 동반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극심한 경기 침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으로 방향을 돌리던 구직자들이 경기 침체와 동종업종 경쟁 심화 등으로 아예 새로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취학 전 자녀를 돌보며 '일'과 '구직'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던 지역민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1년 전(49만1000명)보다 1만명 늘어난 점도 심각한 지역 경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다.

전남의 경우 취업자는 9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연령별로 보면 40대 취업자 수가 15만8000명 줄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뚝뚝한 채' 바람이 불면서 봉선동 일대 아파트값이 최근 급등하고 있다. 12일 광주시 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가를 알리는 가격표가 붙어있다. /김지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자고 나면 1~2억 올라... 미친 집값 언제까지

르포 - 아파트값 급등 광주 남구·동구·광산구 가보니

"양도세 40% 물린다 해도 1억 오르면 6천만원 번다"

"광주 집값 떨어지는 것 보셨어요? 한 달도 안돼 1~2억이 올라 집값이 미쳤는데도, 물건이 나오기 무섭게 매매가 이뤄지는 걸요.", "집주인들이 자기가 내놓았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항의하기도 하고 안 판다고 거둬들이고 있어요."

최근 집값이 불붙고 있는 광주 남구 봉선동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전하는 분위기다. 봉선동은 광주의 '뚝뚝한 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음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2004년 입주를 시작한 '포스코더샵' 전

용 84㎡는 4월에는 5억5000만원(11층), 6월에는 6억3500만원(11층), 7월에는 6억7500만원(4층)까지 뛰었다. 그나마 부동산 중개업소 사이에서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6억9000만원에도 팔렸는데, 기간이 남아있어 (실거래가 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까지 공개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다음달 '업그레이드'되면 집값이 더 뻗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7월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던 '포스코더샵' 전용 150.97㎡(2층)는 1억5000만원 이상 뻗 13~14억에 매물로 나왔고 8억3500만원에 팔렸던 전용 107.28㎡는 최근 9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는 말도 나온다.

'미친' 집값인데도, 팔리는 게 더 문제다. 통상 집을 사는 입장에서 한 달만에 갑자기 1~2억원 가량 뛰면 망설이면서 구입

시기를 미루는 게 정상이다. 봉선동에서 만난 한 부동산업소 중개사는 "집주인이 '안팔리면 말고' 식으로 비싼 가격에 내놓았다더라도 한두달 팔리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지는데, 봉선동은 내놓기 무섭게 나간다"고 귀띔했다. 입주한 지 7년 된 '봉선남 양후튼 2차' 전용 124㎡ 실거래가는 2월 8억8800만원(8층)에서 4개월 만인 6월 9억9000만원(6층)을 기록했다.

봉선동만 그런 게 아니다. 수완지구도 '광주수완대방노블랜드6차' 전용면적 115㎡는 지난 7월 6억4500만원(8층)을 기록했다. 같은 면적으로 지난 3월 5억7000만원(8층)에 거래된 것보다 7500만원이 올랐고 전용 84㎡(16층)는 지난달 5억4000만원에 팔려 7월(4억8800만원)보다 5000만원 가량 뛰었다.

지난해부터 입주에 들어간 광주 동구 학동 '무등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6월 4억원(28층)에 거래됐다

에는 5억7000만원(19층), 6억원(21층)으로 거래가격이 급등했다.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아파트로 인한 위치, 내부 시설 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시세 차가 컸지만 인근 부동산업계에서는 "이후에 나온 7억원까지 호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한번 시세가 형성되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 공급이 팔리면 수요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상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집값 급등기에 유행했던 '강남 불패론'처럼 광주지역 '뚝뚝한 채'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을 했다. 남구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를 40% 물린다고 해도 집값 1억이 오르면 6000만원 버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최근 이용섭 시장의 발언을 계기로 부동산 점검에 나선 게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 '공공기관 유치전' 광주·전남 경쟁이나 협력이나

문화·에너지 분야 유치 겹쳐  
공동 전략 등 방향 잡아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검토작업에 착수하면서 광주와 전남도가 기관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치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와 에너지 기관 유치를 모두 노리고 있는 광주와 전남도

가 경쟁할 지, 협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사·도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전담팀을 조만간 구성,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한 전략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문화와 에너지 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 분야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이 꼽히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이 유치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예술, 해양분야 등 4개 분야를 핵심으로 정해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업정책보급금융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이 유치대상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와 전남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중 문화와 에너지 분야가 중첩돼 있어 향후 유치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놓고 광주와 전남도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도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각각 경쟁할 것인지, 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동 유치 전략을 구사할지 등 큰 틀의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2018 광주비엔날레

## GWANGJU BIENNALE 2018

### 상상된 경계들

# IMAGINED BORDERS

## 9.7—11.11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은 43개국 165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국가, 세대, 민족 간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넘어 복잡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굳건해지고 있는 경계들에 대한 재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로 꾸며지는 주제전과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인 'GB커미션', 해외 유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되면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비롯해 광주 전역을 동시대 시각 문화 현장으로 펼쳐냅니다.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광주 시내 일원  
주최·주관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www.gwangjubennale.org